

## 뉴질랜드 여행기 글 / 송선무 사우

### 태고의 신비에서 누린 자유

눈이 시린 호수와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바라보자 내 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긴 여정에 시달린 이코노믹 증후군 피로감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광 앞에서 한 순간에 사라졌다. 지난 2월 말 겨울 끝자락 한국에서 뉴질랜드 여름으로 건너왔건만 파란 하늘과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뉴질랜드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나를 사로잡은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피오르드랜드의 대표적인 풍경은 험준한 산맥과 빙하시대의 모습을 간직한 U자 계곡, 깊은 협곡에 해수가 스며들어 사계절 내내 변화무쌍한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다. 피오르드랜드 관광의 거점은 타이아나, 이곳에서 밀 포드 사운드로 가는 길,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경관 앞에 저절로 탄성이 터졌다. 만발치 잔설이 남아있는 산봉우리와 산 허리를

감싸며 도는 안개,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낮선 2월말 뉴질랜드 여름의 풍경이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연에 빠지려는 사람들로 인해 유람선 선착장은 북적거렸다. 배를 타자마자 수경같이 맑은 호수가 들뜬 내 마음과 함께 춤을 추었다. 밀 포드 사운드에서 가장 큰 보웬 폭포, 하얀 물줄기를 힘차게 쏟아냈다. 16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위용이었다. 조금 더 위쪽으로 향해 하니 마이티피크가 보였다. 해안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배에서 내려 산을 오를 수 있었다. 1만 2천여 년 전 만들어진 피오르드 해안의 절경이 꿈결처럼 다가왔다. 몇 진 협곡 빙하가 만든 폭포,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신의 창조물이었다. 세계에서 복지 정확이 제일 잘 된 나라에 자연경까지 수려하니 왜 뉴질랜드가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어느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팔짝 마셔도 전혀 탈이 없다고 하니 그만큼 자연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상징이 아닐까? 뉴질랜드는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일차 산업 발전에는 신경을 쏟고 있지만 자연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은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니 미세먼지 걱정 할 필요가 있을까? 밀 포드 사운드 관광을 끝낸 후 남섬 최대의 고풍스러운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뉴질랜드 여행길을 메모지에 정리했다. 나름대로 세계의 유명하다는 관광지를 다녀봤지만 이번 여행처럼 색다른 곳은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유명 관광지를 찾았을 때 마다 지겨운 정도로(?) 고대 문명이나 중세 시대의 찬란한 문명의 현장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번 여행은 수억 년 내려오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대자연 위엄을 통해 인간의 낙약함과 겸손을 배웠다. 특히 울창한 산림지대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의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찌든 심신을 힐링 할 수 있었다는게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짧은 지면에 뉴질랜드 여행을 다 담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도 내 눈에는 밀 포드 사운드의 멋진 협곡과 맑은 호수가 일렁거릴 때 마다 지겨운 정도로(?) 고대 문명이나 중세 시대의 찬란한 문명의 현장을 보는 것이었다면 이번 여행은 수억 년 내려오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보존하고

### 사우회 동지정

**표재순(사우회 고문)** 지난 6월 운동주 탄생 100년 기념 송문학 토크 콘서트 연사로 나서 강연을 했다. 표사우는 운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주제로 한 연극을 연출한 바 있다.

**이찬후(보도)** 지난 4월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문화예술대학 미디어 창작학과 교수로 임명되어 불학기 강의를 하고 있다.

**김광진(방송지원)** 지난 5월 KFR 제일렌트카 법인 영업부 상무로 취임했다. 김 사우는 지난 봄 야외회 때 이 회사 소속 푸른관광 버스 2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시권(편성)** 지난 5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감사로 취임했다. 이 회사는 CJ E&M 자회사로 히트작 도깨비를 제작했으며 하반기 코스타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성(제작)** 지난 4월 26일 TV조선 제작본부장으로 취임했다. 김 사우는 분사 제작시 제작본부 예능 국장, 라디오 센터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하금열(보도)** 지난 5월 두 번째 시집 《산으로 간 연어》를 출간했다. 하 사우는 1집 시집 《강이 끝나는 산 너머로》를 펴낸 바 있다.

**<협찬금 내신 분>**

권은열 (20만원)	김광섭 (30만원)	박동준 (30만원)	이찬후 (30만원)

사우회 모임에 개근상(?) 수상자들이 줄어들고 있어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의뢰(?) 했더니 이들이 노예(?)가 되었다고 한다. 목화밭으로 팔려간 노예들은 질곡의 굴레를 벗어나기라도 했지만 이들의 노예 해방은 링컨이 와도 안될 거라는 얘기다. 그럼 '사우가 노예가 된 까닭?'을 함께 시청하자. '그러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노예의 고백에서 그 비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

**SBS Medianet**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와 감동**

SBS 미디어넷과 함께 만드는 기쁨은 언제나 'On-Air'입니다.

기쁨 Plus SBS Plus  
다 함께 fun! SBS funE  
함께 만드는 스포츠 세상 SBS Sports  
골프의 모든 순간 SBS Golf  
익선이는 경제채널 SBS CNBC  
Music & More SBS M  
Kids First nikelodeon

무대디자인 / 소품 / 의상 / 미용 / 조명 / 3D 컴퓨터 그래픽 / 비주얼 디자인 / 야외촬영 / 특수촬영 / 해외위성 송수신 / 방송지원 / 중계자 임대 / HD 방송시스템구축 / IT 네트워크 / 행사 이벤트 사업 / 방송시설 SI사업

## 지상파 3사 UHD 본방송 개시

### 초고화질 화면과 양방향 서비스 시대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수도권에서 지상파 초고화질 UHD 본 방송을 시작했다. 이로써 지상파 3사는 2001년 HD 디지털방송을 시작한지 16년만에 HD보다 4배 이상 선명한 화면과 일체 음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되었다. UHD 방송은 현장에 가있는 듯한 느낌으로 시청의 감동을 크게 해주며 울 12월 부터는 TV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맞춤형 VOD와 데이터 정보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지상파 방송3사는 UHD 프로그래밍을 올해 5%,내년에 10%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내년 평창 올림픽에서는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2021년 까지 전국에 UHD 방송 시청권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우회 이관형 사무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사우들은 이날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지상파 UHD 개국 공동축하쇼에 참가해 새시대 새로운 방송 비전을 널리 선포하는 뜻 깊은 자리에 함께 했다.



## 사우회 직능별 모임 활발

### 보도에 이어 제작본부도 발족

사우회 활동과는 별개로 사우들의 직능별 모임이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해 보도본부 퇴직 기자들 모임인 '여목회'에 이어 SBS 초기 제작본부 간부들은 지난 6월 말 여의도 한 식당에서 두번째 모임을 갖고 이날, 이종수 사우를 각각 회장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모임에는 임형두 당시 제작본부장을 비롯해 곽영범, 신원수, 윤인섭, 장동욱, 사우등 간부급 사우들이 자리를 함께해 초기 제작본부의 회로예약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초기 제작본부 간부회는 다음 모임에서 모임의 명칭을 정하는 등 협력 제

작본부 후배들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보도본부 기자들은 '여목회' 모임을 결성해 김복수 사우를 회장으로 배성례 사우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하는 등 정례모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스포츠본부도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직능이 다양한 기술본부 사우들은 오래전부터 직능별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해 친목을 나누고 있다. 사우회는 이들 직능별 단체 모임의 활성화가 곧 사우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에 하반기에 이들 모임의 총무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너 설 나 설**

▲ 봄철 야외회 성황, 튼튼한 다리로 호수를 거닐으니 눈이 즐거웠고 튼튼한 치아로 갈비를 뜯으니 입이 즐거웠노라! 간만에 모두 만족이니 아쉬없는 야외회.

▲ 직능별 친교 모임 활발, 통합의 시대, 따로 국밥집(?) 개업으로 설마 사우회 분당사태는 아니겠쥬, 각개 모임이 연대하면 그 힘은 배가 되느니라



▲ 산정호수를 바라보며 신록의 정취에 젖은 사우들

## 호수에 樂을 띄우다

### '매일 야외회 같아라'

"아카시아꽃 향기를 마시며 호수 둘레길을 한 바퀴 돌고나니 미세먼지로 찌든 때가 확 씻겨지네요" "맑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으니 매마른 내 마음도 이제 호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5일 사우회 봄철 야외회에 참석한 사우들이 아름다운 산정호수에서 느낀 정취다. 이날 야외회에 참석한 60여명의 사우들은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주변의 자연과 교감하며

즐거운 봄날의 하루를 만끽 했다. 사우회 김수용 회장은 참석한 사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 했다. 호반에서 힐링을 마친 사우들은 인근 갈비집에서 푸짐한 식도락을 즐긴 후 가을 야외회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 했다. 한편 이날 사우회 김광진 사우는 교통편의를 위해 대형 관광버스 2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 사우회 정기 바둑대국

### 엄광석,정승화 사우의 기력이 빛났다.

바둑동호회 주관, 사우회 올해 첫 정기 바둑대국에서 엄광석,정승화 사우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4월 18일 사우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12명의 바둑고수들이 참가해 삼급과 중급 2개조로 나눠 흑백대결을 펼쳤다. 삼급조 결승에서는 엄광석 사우가 정영철 사우를 꺾고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가졌으며 중급조에서는 정승화 사우가 이관형 사우를 누르고 고수의 기력을 보여주었다. 바둑동호회는 오는 9월 사우회 창립기념대회와 11월 추계바둑대회 등 두 차례 열리는 대국전에 신입고수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SBS社友漫評**

할부지 다녀와~

올 여름은 유모차 손잡이 대신 캐리어를 잡으세요!



<야유회 화보>



시간의 여유로움, 수목화 배우기

글 / 김혜리 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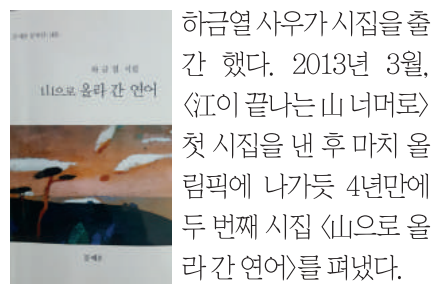
정년퇴직을 앞두고 맞이한 안식년, 사우회에 조기입학(?)을 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곳이었다. 퇴직 후 꼭 수목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사우회에 수목화 동호회가 나의 바람을 들어 주었다. 멋진 선배님들이 첫 친정 나들이한 막내 여동생 맞이하듯 반겨주었다. 같이 근무했을 때 몰랐던 까칠했던 A선배, 무뎠던 B선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정말 따뜻하고 재미있는 분들이었다. 수목화 입문, 마음은 앞서는데 손이 따라가지 않았다. 수목화를 잘하려면 농담(?)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붓에 먹물을 묻히는 순간 그 의미가 우스게 소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목화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해 먹의 진하기와 흐림의 정도를 조절 하는 것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 초보라

서 화선지에 난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먹물의 톤을 조절해 나무의 줄기와 꽃을 구분지어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오랜 직장생활 끝자락에 맞이한 안식년, 사우회 수목화 동호회서 갖는 지금 나의 시간들은 여유롭고 평화롭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여유로움도 익숙해지면 지루함으로 바뀔까? 있었지만 수단으로서의 배움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위한 목적으로서의 배움이니 스트레스없이 즐기며 신나게... 오늘도 나는 수목화를 배우러 간다.



<사우출간>

하금열 시집 <산으로 올라 간 연어>



하금열 사우가 시집을 출간 했다. 2013년 3월, <江이 끝나는 산 너머로> 첫 시집을 낸 후 마차 올림파에 나가듯 4년만에 두 번째 시집 <산으로 올라 간 연어>를 펴냈다. 처녀시집이 섬 소년의 눈으로 각산에서 내려다 보는 바다. 끝없이 물결치는 푸른 보리밭, 뽕밭, 벼밭, 해수욕장 등 아름다운 거제의 자연 풍광을 그린 귀향의 꿈과 청춘 앞에선 현실의 고뇌를 담았었다면 이번 시집에서는 알래스카의 집푸를 바다를 돌아 강내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절실한 회귀본능을 보여주고 있다. 빙

하의 잔 물살이 날라다 준 이유식으로 두텁고 어두운 겨울을 견뎌낸 뒤 어머니가 그리워 수만리를 역경해 강 속에서 아버지의 채취를 처음으로 맡고 찬란하고 거룩하게 잉태를 한 뒤... 하사우는 두 번째 시집을 통해 최후의 운무를 펼치는 연어의 장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참 모자라는 속보이는 당찬인 줄 알면서도 뚱하는 하면서 지냈다.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두 번째 시집을 엮었다는 하사우는 이 시집을 읽고 누군가는 웃어주고 누군가는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는 잠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스로 시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 그저 보기만을 좋아하는 그가 또 4년 후 어떤 시집을 낼지...

<여름건강 팁>

자외선 탈출



태양이 강렬하고 자외선이 많은 여름, 산과 바다가 기다려지는 여름, 모두 다 휴가철인 여름을 기다리지만 피부 노화를 생각하면 마냥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부 노화를 억제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신경쓰면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동료들보다 검버섯이 많거나 주름살이 많다면 얼마나 슬퍼질까요. 더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싶다면 좋은 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노화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거나, 얼굴은 물론 노출된 팔, 다리에도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경우 땀이 나고 수건으

로 닦다보면 땀이나 수건에 의해 자외선 차단 크림이 희석되거나 씻겨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더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짜기 때 그늘 집에서 한 번 더 발라주는 센스는 피부건강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며, 자외선 차단지수(SPF, sunprotecting factor)가 30~50사이로 자외선 A와 B를 함께 차단해주는 크림이 좋고, 2~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잘 때는 차단크림이 남아 있지 않도록 꼼꼼히 잘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에 의해 가끔 가렵거나 붉은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긁지 않고 며칠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계속 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글 / 신철철 의학과사 (피부과 전문의)

Advertisement for SBS Content Hub. It features a globe, a bar chart showing 'view HITS: 10,000,000', and text stating 'SBS콘텐츠허브는 세계적인 콘텐츠 종합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nd '콘텐츠 기획 유통 No.1 SBS 콘텐츠허브'. It also includes the website address www.sbs.co.kr / www.sbscontentshub.co.kr.

<사우인터뷰> - TJB 대전방송 강선오 사장

“달라서 행복하고, 다르기에 미래가 있는 지역중심 방송이 우선”



- He is ~ SBS 교양총괄 CP와 SBS A&T 시장을 역임하고 2015.9월 대전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대전방송 대표로 취임할 때 프로듀서 경륜을 살려 지역 민방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문화사업 등 특별한 구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 되는데 계획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이고 계속 추진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이지요? - 예전에 사투리를 소재로 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제주, 광주, 대전... '왜 우리는 같아야 할까?' '다르면 틀리다'는 그래서 "천편일률"이고 '다른 것은 적이다'는 곧 "불행한 과거",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 반해 다양한 속에 있는 지역 색을 잘 포용함으로써 달라서 행복하고, 다르기에 미래가 있는 지역중심, 지역우선의 차별화된 방송을 계획했습니다. ▶ 정부 세종2청사 시정권역으로 대전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중심특성을 감안한 지역 문화선도 라든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 민방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 물론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TJB 구성원 모두는 지역에서의 위상확대를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TJB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세종시를 무궁화도시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궁화 테마파크에서 수많은 종류의 무궁화를 보시면서 국화로서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는 마음이 커옵니다.' 라는 TJB 연중 캠페인도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이 같은 캠페인을 설정한 배경과 시청자들의 공감대는 어떤지요? - 재작년이었습니니다. 대전에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병원의 건립을 추진중이었는데 그때 만났던 분들의 고민이 보통 깊은게 아니더군요. 돈도 돈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받는 고통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문득 어렵게 때 생각이 났습니니다. 자연스레 옆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기도 했고 이웃에 또래가 있으면 형제자매와 같이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불편하다해서 외톨이가 되기보다는 아이들 누구나 마음 어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엔 꾸지람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언제 캠페인을 끝낼지 정하지는 않았으나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전방송이 시청자 미디어센터 발전협의

회를 통해 스마트시대 미디어교육 확대 등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과는 어떤지요? - 네, 맞습니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도덕적 의무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고 토론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래의 대를보로서 재능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TJB의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 앞으로 요즘 나만의 건강관리는 무엇이며 어떤 취미에 심취해 있는지요. - 국토의 중심에 있어 전국 어디를 가든 세 시간 이내에 도달 할 수 있는 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많이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건강해야 하는데 항상 아쉽습니니다.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들과 보냈던 많은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제가 오롯이 저 만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왔던 많은 분들과 부대끼며 고민하고 느끼고 살아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문학기행

글 / 박건삼 사우(기업엔미디어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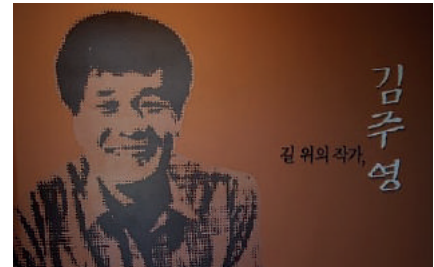
문학의 본질은 '위로'라는 <뜻밖의 생>을 쓴 작가 김주영

35여년을 김주영 선생의 주변을 뒀든 나는 다시 한 번 그의 최신작 <뜻밖의 생>을 읽고 무릎을 꿇었다. "인생은 걸어 다니는 그림자야. 해 떨어지면 사라지는 것이지." 라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문학의 본질은 '위로'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는 1939년 경북 청송에서 태어났다. 올 해로 77살이다. 우리나라로 여든을 눈앞에 둔 79살이다. 1971년 월간문학 신인상 공모에 단편(휴먼기)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그 뒤 단편(마군우화 馬君寓話 신동아, 1973.10), <과외수업, 월간중앙, 1974.9> 등과 장편(목마 위의 여자)(1976) 등을 발표했다. 소설집으로 <겨울세>(1983) · <아들의 겨울>(1985) ·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1989) 등을 펴냈다. 1998년 <홍어>로 독서계의 열풍을 휩쓸었다. 그는 <객주>를 쓰기위해 문경세계 하늘재를 6번이나 넘나들며 발품을 팔아

답사를 했다. 그를 왜 '길 위의 작가'라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객주>로 1984년 제1회 '유주현문학상'을 받았다. <객주>완간 이후 4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 <뜻밖의 생>을 출간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유년부터 노년의 시간까지 그려낸 불행하지만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 <뜻밖의 생>은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노장만이 쓸 수 있는 삶의 혜안이 담긴 소설이다. 삶의 예측 불허함, 행복의 본질, 세계에 내재된 아이러니를 천부적인 이야기꾼 김주영답게 강렬한 서사로 풀어냈다. 작가는 한 인간이 생을 살아내며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과 희극을 동시에 펼쳐 보인다. <뜻밖의 생>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문학동네 네이버 카페에 매일 연재한 작품이다. 그는 "춤추지 않을 때 더 많은 춤을 추고 눈을 감고 있으면서 손으

로 천국을 만지는 게 바로 인생이야."라고 우리에게 일러준다. 우리가 그의 대표작 <객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주영 깊이 읽기를 쓴 황종연은 "객주의 중요성은 그것이 담고 있는 새로운 역사의 인식의 틀에 있다." 이렇게 간결하면 서도 압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했다. 김주영은 토속적이고 섬세한 언어로 한국 정서를 가장 탁월하게 그려내는 소설가다. 그는 유목민 체질의 큰 체구에 잘생긴 얼굴이다. 그런대도 어딘지 막사발 토기 같은 질박한 그의 촌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정겹다. 가끔씩 천둥소리처럼 터지는 그의 너털웃음은 통쾌하다 못해 황홀하다. 값으로 따지자면 너털웃음을 한 번에 백만 불은 족히 넘을 것 같다. 지난 5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송의 '객주문학관'에서 작가를 만나 한 잔 거나하게 취하고 돌아 왔다. 2차 노래방에 가서 개황창

가에서 신구잡기. 최신 유행가까지 거침 없는 그의 절창을 들었다. 주석에서 그의 결속하다 못해 절묘한 육담은 시냇물로 우리 사람을 죽여주었다. 그의 술 실력은 또 어떤가. 천하 절륜이다. 한 마디로 기마민족 창기즈칸의 후예다운 결출한 장부사. SBS사우회원 여러분! 올 여름엔 순수하고 낭만을 가슴에 품고 사는 김주영, 스스로 가장 재미있다는 소설 <뜻밖의 생>을 만나보도록 하자. 그가 푸른 산에서 얼얼하다. 그런대도 어딘지 막사발 토기 같은 질박한 그의 촌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정겹다. 가끔씩 천둥소리처럼 터지는 그의 너털웃음은 통쾌하다 못해 황홀하다. 값으로 따지자면 너털웃음을 한 번에 백만 불은 족히 넘을 것 같다. 지난 5월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청송의 '객주문학관'에서 작가를 만나 한 잔 거나하게 취하고 돌아 왔다. 2차 노래방에 가서 개황창



◇ 경조사

축하합니다.

권오일 차녀(4/15) 박성준 차녀(5/27) 송호석 딸(5/13) 이성규 장녀(5/13) 장철수 딸(6/10) 손규환 장남(6/11)

애도합니다.

강영권 부친상(4/3) 손규환 부친상(4/24) 변영우 부친상(5/17) 이찬휘 부친상(6/12) 주동원 모친상(4/22) 박래영 모친상(5/2) 변영우 모친상(5/25) 이두표 빙모상(6/21)

◇ 회비내신분

연회비(4월~6월) 김한옥 서감역 소속자 유재순 윤동혁

총신회비 김혜리 박영수 손규환 이승노

◇ 회비안내

연회비 : 30,000원 총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비 납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

(총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